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의 10주년 공연 「해당화」네 부모를 공경하라.

서구적 감성과 그 세계관의 체계에서 벗어나 아시아적 감성과 그 세계관의
표출을 전면에 내세운 이색적인 공연 스타일

그 같은 실정에서 스튜디오 춤공연의 시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대관이나 작품 외적인 경제적 고통에서 춤꾼들이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고, 더불어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 춤작업을 위한 준비 내지 시연을 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더 나아가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실험적 공연의 성격을 띠다 면, 스튜디오 춤공연은 하나의 ‘독립된’ 공연 형태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예술적 실천과 인식의 과제 남긴, 스튜디오 춤공연들

지난 1, 2월 동안 이미 세 차례에 걸쳐 7~8인의 솔로 릴레이식 발표가 이어지면서, 그 발표의 끝에 즉흥을 곁들인 합무(合舞)를 보여주었던 춤스튜디오 6-D(서울 강남 양재동 소재, 대표 안정준)의 첫 스튜디오 공연에서 이제 우리 현대 무용계의 중견들이라 할 수 있는 장애숙·장은정·최경실을 비롯해, 한창 왕성한 춤을 보여주고 있는 김혜숙·류석훈·김수영·박호빈·최진한·최연수 등이 참여하여 새로운 방식의 춤 공연 형태를 시도해 보여주었다. 동근 2개의 큰 창문과 길가 쪽으로 난 큰 유리창문을 배경으로 매 회 40~50명 남짓의 관객이 모여들었던 이 스튜디오 공연에서, 최근 자신의 무용단 '제6감(感)'을 결성한 장애숙은 발레 전공의 현대무용수 양승민과의 듀엣 작품 「십(十)」을 통해 남성·여성의 그 속 깊은 존재성과 운명성을 정갈한 상징성 속에서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적 움직임과 큰 상승 및 회전 동작의 교차를 통해서 인상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어 현대무용가 최경실은 작품 「진달래 꽃」에서 타악 집단 「월」과의 공연(共演)을 통해서 김소월의 시 속에 함유된 사랑의 내면적 고통을 3인 함께 어울려가며 짙근짙근 무대를 밟는 동작, 체념한 듯 고통스런 노래 부르기, 그리고 세숫대야에 머리를 감는 퍼포먼스적 행위 등을 통해 이색적으로 표출했으며, 한국 컨템포러리 소속의 김혜숙과 류석훈은 각각의 솔로를 통해 그들 특유의 낭만적 감성의 조형적 표현(김혜



춤스튜디오 6-D(서울 강남 양재동 소재, 대표 안정준)의 스튜디오 공연 중

사진출처: KoPAS(한국실험예술정신/코파스) Daum카페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의 모습은 특수한 미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서구의 현대무용을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있으면서, 허물어진 어떤 폐허 혹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삶과, 보다 넓은 의미의 알 수 없는 심미성의 구축을 바라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 공연에서 보였던 어떤 아시아적 풍경의 제시는 서구의 그것과 분명히 달라 얼마만큼 신선했지만, 그러나 역시 얼마만큼 그것과 또한 비슷한 정도의 이국성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하튼 하나의 춤공연이 우리를 삶의 근저로 더 가까이, 더 깊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부인키 어려웠다.

속의 「장면」)과 날카로운 불연속적 동작들의 이음(류석훈의 솔로)을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현대무용단 소속의 김수영은 「돈, 돈(豚)」이란 흥미로운 퍼포먼스적 춤을 통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영위되고 있는 우리의 물질만능의 세태를 주로 회전 동작과 일종의 엷은 연극적 행위를 통해 풍자해 보였고, 최근 여러 작품을 통해 안애순 이후 가장 뛰어난 안무력을 보이고 있는 장은정은 「지금 여기」라는 날카로운 감성의 간략한 솔로를 통해 신체의 뚜렷한 조각적 형상미와 그것의 불안한 유지, 그 사이의 긴장감을 콘트라베이스의 현장 연주(그 이후는 호주 원주민이 사용하는 큰 긴 막대의 통소)를 곁들여 시정감(詩情感) 짙게 보여주었다. 그런 가운데 2회·3회 공연 때부터 합류했던 박호빈과 정연수는 각각 「무제」, 「사물의 윤회」와 같은 솔로를 통해 더욱더 변화 많고 힘찬 춤동작(전자)과 섬세하고 유려한 가운데 어떤 영적 호소력을 지닌 춤(후자)을 보여주었고, 신에 최진한은 「그대에게…」라는 코믹한 퍼포먼스를 통해 장난감 바이올린, 붉은 꽃 등을 이용하여 관객과의 새로운 교감을 시도하려 했다.

지난 1960~70년대 이른바 포스트모던 댄스라 알려진 미국의 현대무용도 즉흥·이벤트·콜라주 등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앞세워 이른바 극장을 벗어나, 관객과의 새로운 지적(知的) 교감을 시도한 바 있다. 물론 그들은 역사적으로 80년대 이후 다시 극장 공간으로 복귀하지만(트리샤 브라운이나 루신다 차일스, 데이비드 고든 등), 반대로 그들 중 일부는 보다 진지한 삶의 자세를 앞세워 아직도 비극장 공간에서의 춤의 작업을 실행시키고 있다(즉흥 안무의 창조자들인 시몬 포르티나 스티브 팩스턴, 데보라 헤이 등).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스튜디오 춤공연은 아직은 그 첫 시발에 불과하겠지만, 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 과연 어떤 시각과 삶의 자세로 자신의 예술과 삶(혹은 삶의 느낌)을, 어떻게 일치/불일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보다 깊은 예술적 실천과 인식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하겠다.

삶과 예술의 가능한 한 근접 보여준,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한편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게 된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의 작업도 통상의 우리 현대무용작업과 다른 흥미로운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무용단은 특히 2004년 이 무용단의 주역 무용수이면서 동시에 이 무용단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젊은 안무자 김윤규가 작품 「숫나기」를 통해 당시 문예진흥원(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첫 제정한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 그 첫 대상자가 되면서 비평계와 춤계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은 바 있다.

그 작품에서 김윤규는 이 무용단 특유의 ‘다층적인, 열린’ 춤과 극의 혼합을 통해 아시아적 유목민적 삶의 분위기가 밴 독특한 춤의 형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이 무용단의 예술감독인 김형희의 안무작 「해당화」 또한 그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허물어진 듯한 한 폐가와 같은 농가를 배경으로, 한 가족 혹은 마을 공동체의 말 없는 ‘공존적(共存的) 삶’과 남녀노소, 정상인/비정상인의 구별이 없는 ‘비차별’의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 공연에서 안무자는 일견 천방지축의 표정을 지닌, 그리고 마치 용수철처럼 매우 약동적인 몸동작을 보여주는 어린 소녀와 실제 중풍에 걸린 지체장애인이(이 무용단의 단원이기도 하다), 또 매우 연로해 보이는 한복 차림의 할머니를 별 꾸밈 없이 리얼하게 무대에 등장시켜 어떻게 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침묵 속에 묻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예술적 행위는 이른바 어떤 특수한 미적 추구, 즉 미학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같은 편협한 목적을 넘어 일종의 ‘삶의 윤리성’을 묻고 있었다. 그것은 이 작품의 부제로 되어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경구와 호응하는 것으로서, 이 무용단의 경우 그들 예술적 목표는 바로 삶의 모습을 심미적으로 이상화시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되고 먼지 앉은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란 태도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었다. 더불어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규격화된 이른바 차가운 현대적(모던) 정서가 아

닌, 그 이전의 유목적이고 또 얼마만큼 공동체적인 훈훈한 인간적(프리-모던) 정서의 표출을 그들 춤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같은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의 모습은 특수한 미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서구의 현대무용을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허물어진 어떤 폐허 혹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삶과, 보다 넓은 의미의 알 수 없는 심미성의 구축을 바라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로서는 이 공연에서 보였던 어떤 아시아적 풍경의 제시는 서구의 그것과 분명히 달라 얼마만큼 신선했지만, 그러나 역시 얼마만큼 그것과 또 한 비슷한 정도의 이국성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하튼 하나의 춤공연이 우리들 삶의 근저로 더 가까이, 더 깊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부인키 어려웠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춤의 비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지체 장애인, 할머니 등이 출연하여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스튜디오 춤공연이 다른 방식으로, 무의식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과 예술의 가능한 한 근접—그것과 얼마쯤 흥미롭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넓게는 오늘의 예술행위 일반, 좁게는 오늘의 현대무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가—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우리 춤계에 나타나고 있는 두 예술적 흐름과 현상은 몇 가지 속 깊게 음미해 보아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었다 할 것이다. 